

벤처 M&A는 영역확장보다는 생존전략!

전대영 / (주)우리기술



올 여름은 별로 더운줄 모르고 지낸 것 같다.

아스팔트가 녹아나고 건물마다 차마다 설치된 에어컨이 외부로 뿜어대는 열기가 뜨거운 여름을 실감케 하는 도시의 생활에 이력이 붙어서 이기도 하겠지만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바쁘게 보내온 탓이기도 하다. 또 정보통신 업계의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들, 또 닷컴 기업의 10월 대란설 등이 때로는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한 스틸

과 찬바람을 주기도 했다.

오랫동안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어느 인사가 여름은 수인에게 잔인한 계절이라고 썼던 것이 생각난다. 닫힌 공간에서 같은 운명에 처한 동료들이 서로를 36.5도의 뜨거운 발열체로만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철저히 떨어지고 싶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의치 않을 때 원초적인 증오가 생기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미약하지만 서로가 따뜻함이 되어 다가서게 하는 겨울을 살만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올 여름에 많은 정보통신 기업들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겨울처럼 살기를 시도해야 했다. 수많은, 이른바 닷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로 시도했고 아예 한몸이 되어버린(?)

여러 회사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조건을 보고 합병을 시도해왔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현상을 지난날 재벌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정보통신기업들의 영역확장은 과거 재벌들의 행태와는 다른 점이 많다. 일단은 나름대로 기반을 갖고 있는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고, 합쳐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로의 진출은 무차별 확장과 구분해야 한다.

경우도 많았다. 거대한 황금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IMT-2000 사업자 선정 기준도 결국은 컨소시엄 형태로 가지 않았던가? 이래저래 외부의 요구든 자구책 마련차원이든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거칠고 단순한 구호안에 정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몽치고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초여름계 코스닥 주가지수의 변화를 주도하는 몇몇 기업들의 합병설이 나돌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때 거론되었던 한 기업은 또 다른기업과의 주식교환 형식으로 인수합병을 마무리했다. 그 밖에도 여러 회사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조건을 보고 합병을 시도해왔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서로 함께 모여 일하기로 한 회사들은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믿기에 합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른바 연말에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조정 등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현상을 지난날 재벌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무작정 영역을 확장하고 몸집을 불리는 것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최근들어 자주 목격하게 된 상황이라 더욱 영역확장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정보통신기업들의 영역확장은 과거 재벌들의 행태와는 다른 점이 많다. 일단은 나름대로 기반을 갖고 있는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고, 합쳐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로의 진출은 무차별 확장과 구분해야 한다. 특히 벤처끼리의 인수 합병이나 신규사업 진출은 대부분 또 다른 벤처 영역으로의 확장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위험이 크지만 가능성에 도전하는 벤처정신을 기반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부실 기업을 정부의 세제지원까지 받아가며 위험 부담없이 인수해온 과거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한편 온라인 분야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의 행태를 닮아 간다는 지적을 받는 곳이 있는게 사실이나 대부분 아직은 수익구조가 취약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의 일환이라고 본다. 더구나 요즘처럼 닷컴기업들이 여러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연말 대란설 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기업들이 더욱더 살길을 찾아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기업들의 살아남기 위한 짝짓기 열기는 더욱 뜨거워 질 수 밖에 없을 같다. 더운 날씨가 무색하게 말이다.